

한국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작품에 나타난 영웅주의

— 「아리랑」, 「태백산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중심으로

이 해 년*

차 례

- | | |
|------------------------------------|-----------------------------------|
| I. 한국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작품의 영웅주의 경향 | III. 민족 영웅적 실존인물을 통한 리얼리티 강화 |
| II. 영웅적 주인공과 이분법적 대립구조 | III-1. 민족 영웅적 실존인물을 통한 주인공의 영웅화 |
| II-1. 영웅적 주인공을 통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주제 강화 | III-2. 실존인물을 통한 역사 다시 읽기와 리얼리티 강화 |
| II-2. 근대적 대립구조로 근대성 극복 | IV. 영웅주의를 통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주제 강화 |

I. 한국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작품의 영웅주의 경향

본 연구는 일제시대와 광복공간, 6.25사변과 남북분단체험의 직접적 피해자였던 우리문학담론에 나타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경향을 분석하여, 민족정체성 확립의 양상과 전망을 살펴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문학담론에 새롭게 부각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경향은 최근 몇 년간 출간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동서대학교 외국어학부 교수

다>(1993), <태백산맥>(1993)과 <아리랑>(1994) 등의 장편소설 또는 역사대하 소설류의 열풍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본 연구는 이들 세 작품이 주인공을 극단적으로 영웅화시키고, 이 영웅적 주인공에 의해 극단적 대립구조로 전체 서사구조를 이끌어가는 영웅주의 경향을 띠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 영웅주의 경향의 양상과 원인을 밝히려 하는 것이다. 먼저, 이들 세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우리민족의 운명을 바꿔놓을만한 일대 변혁기로 설정되어있고, 모두 역사적 소용돌이의 핵의 위치에 서서 역사적 신념과 열정을 지니고서, 그 시대적 흐름을 주도해 가는 적극적 주도자, 즉 영웅적 주인공을 지나치게 내세우고 있는 것은, 모두 민족정체성과 민족자존이라는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임을 밝히려 한다. 또한, 이 영웅적 주인공에 의한 극단적 대립구조는, 근대성이 지닌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하려는 진정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실현임을 아울러 밝히려 한다.

다음으로, 이들 세 작품이 모두 우리 민족역사 속에 실존했던 영웅적 민족지도자들을 상당수 등장시킨 것은, 이들을 통해 영웅적 주인공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전체 서사구조에 폭넓은 사실성(reality)을 부여하는 서사적 장치임을 밝히려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 세 작품이 드러내는 모든 영웅주의 경향은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를 강화시키는 전체 구조적 장치임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II. 영웅적 주인공과 이분법적 대립구조

II-1. 영웅적 주인공을 통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주제 강화

한국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리랑>, <태백산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주인공들은 모두 우리민족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족의 자존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급 영웅적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역사적 소용돌이의 핵의 위치에 서서 역사적 신념과 민족애의 열

정을 지니고서 그 시대의 흐름을 주도해 가는 적극적 주도자이며, 우리민족 역사의 총체성을 한몸에 지니고 있는 ‘세계사적 개인’이다.¹⁾

이 세 작품은 이러한 민족영웅적 주인공의 부각을 통해 민족자존과 민족정체성 확립이라는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를 강화해 간다.

<아리랑>의 경우, 아나키스트이며 민족지도자인 ‘송수익’을 들 수 있다. 송수익은 <아리랑>의 중심사건과 중심사상을 관통하여 이끌어가는 세계사적 개인이며, 항일 지도자를 민족적인 영웅으로 형상화시킨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다. 양반으로서 항일의병운동을 전개해가면서 그때그때 시대에 맞는 사상적 명분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영웅적 민족지도자이다. 송수익은 일진회에 맞서 공허, 신세호, 방대근 등과 함께 의병을 조직하고, 토지조사가 실시될 무렵 대종교도로서 만주 독립군이 된다. 그 후, 신채호의 영향으로 독립투쟁을 위해 무정부주의자가 되는데, 친일파 양치성의 추적을 받다가 재만 독립군 대토벌이 시작되자 관동군에게 체포되고, 일본 패망 직전에 결국 옥사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

송수익과 함께 항일의병활동을 하고 <아리랑>의 중심사건을 이끌어가는 또 다른 민족영웅적 중심인물로서, 공허와 방대근을 들 수 있다. 공허 또한 독립군의 군자금을 조달하는 등 의병운동을 하고 공산주의 계열의 민족주의를 적극 지지하는 승려이며, 방대근은 만주 신흥무관 학교를 졸업하고 만주에서 의병과 독립군으로 활약하는 중심인물이다.

-
- 1) <아리랑>과 <태백산맥>의 기존 연구자들은 모두 역사적 상황을 주도하는 주동 인물들의 모습을 ‘세계사적 개인’으로 보았다.

「…… <태백산맥>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상황을 주도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언뜻, 해계의 역사철학에서 문제삼은 바 있는 ‘세계사적인 개인’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

(권영민, 소설의 인간상, 그리고 『태백산맥』의 인간상, p.127)

「…… <아리랑>의 인물들은 역사진보의 의식적 담지자인 ‘세계사적 인물’과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보전적인 개인’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송수익, 공허, 정도규, 방대근 등과 같이 자기희생의 바탕 위에서 일체에 맞서 싸우는 존재들은 세계사적 인물의 범주에 넣을 수 있고 일본인 지주나 관리 그리고 친일분자들은 보전적 개인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

(조연현, 소설을 통한 역사와 민족의 새독법, 『아리랑연구』, P.26.)

<태백산맥>의 경우, 하종민 출신의 빨치산대장인 ‘염상진’을 민족영웅적 주인공으로 들 수 있다. 염상진은 노비출신 솟장사 염무철의 아들로 태어나 사범대학을 졸업했지만, 교직을 그만두고 적색농민운동의 주동자로 성장하며, 사회주의 혁명을 꿈꾼다.

민족독립을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서 일제와 결탁해 있는 지주들에게 대항하였고, 징역을 살기도 하였으며, 여순사건 때 남로당 군당위원장으로 벌교를 장악하였고, 지리산으로 퇴각하며 빨치산 활동을 벌인다. 휴전 후 퇴각길이 막히자 부하들과 자폭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염상진과 그 주변인물들의 비극은 모두 식민지 현실이 낳은 계급적 민족적 모순의 결과이다.

또다른 민족영웅적 중심인물로서 벌교의 유지이면서 중도적 민족주의자인 김범우를 들 수 있다. 지주의 아들이면서 진보적 사고를 지닌 교육자로서, 도덕성과 고상함을 지니고 합리적인 판단을 보여주면서, 중간조정기능을 행하지만 행동적인 지식인은 아니다. 민족주의를 최고우위에 두고 끝까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상주의자이므로, 사회주의 혁명보다는 민족의 자기각성을 중시한다. 좌익·우익 모두에게서 배제되고 곤욕을 치르지만, 결국 공산주의자로 전향한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주인공 권순범은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서 역사를 꿰뚫는 혜안을 가진 신문기자이며, 남북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뛰어넘어 민족자존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민족주의자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의 안보와 민족자존을 위한 역사적 안목을 폭넓게 갖춘 젊은 지성인으로서 강한 신념과 용기를 지녔다.

민족의 장래와 민족자존을 위해 빈틈없는 추리력과 집념과 용기로서 전세계를 무대로 플루토늄의 행방을 추적하고, 역사 속에 묻혔던 핵개발계획을 알아내며, 거시적 안목에서 대통령을 설득하여 남북핵합작을 실현하고, 한반도 안보를 위한 시나리오를 설계해 내는 민족영웅적 주인공이다.

위에서 살펴본듯이, 이러한 민족영웅적 주인공들은 지나치게 미화되어 형상화되어 있고, 이들의 능력 및 활약상이나 시간·공간적 배경은 평범한 인물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 곧 서양의 로맨스(Romance)문학이나 동양의 전기(傳記)

문학의 주인공인 '영웅'을 닮아있다.²⁾

곧, 세 작품의 주인공들은 모두 능력면에서 탁월하여, 민족역사의 격동기나 역사의 전환점에 서서 그 핵심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며, 전세제를 무대로 맹활약을 펼치지만, 전설의 영웅처럼 비극적 결말 또는 비극적 운명을 맞기도 한다.

<아리랑>의 송수익은 항일의병지도자로서 한반도와 만주까지 걸쳐 독립투쟁을 주도하는 활약을 보이지만, 관동군에게 체포되고 결국 일본패망직전에 목사하고 마는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태백산맥>의 염상진 또한 교사를 그만두고 적색 농민운동의 주동자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며, 민족사에 큰 핵으로 남아있는 빨치산대장으로 끝까지 큰 활약을 펼치지만, 휴전 후 북으로의 퇴각길이 막히자, 결국 수류탄으로 자폭하는 비극적 최후를 선택한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권순범의 경우는 완전무결한 민족영웅적 인간상을 보이지만 비극적 최후를 맞지는 않는다. 이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신문기자이면서, 비범한 추리력과 신념과 용기를 모두 갖춘 민족영웅적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는데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완전무결한 인간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오히려 민족자존을 위한 희망적 전망을 갖는 생동감 넘치는 결말을 보인다.

이러한 결말의 구조는 작품창작동기와 창작시점이 민족정체성의 확립과 민족자존을 위한 새로운 희망적인 전망 제시가 간절히 요구되었던 시대적 상황과 관련있다고 보며, 권순범은 이 시대 상황이 간절히 바라는 새로운 민족영웅적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듯이, 이들 민족영웅주의적 주인공들의 최우선 당면과제는 민족주의이며, 민족자존과 민족정체성의 확립이었으며, 이들 주인공도 이러한 포스트콜로니얼한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완벽한 삶을 살아 나간다.

2) 정호웅은 염상진을 절대 비타협의 민족주의자로서 '비현실적 영웅'으로 보았다.

(정호웅, 태백산맥론, 『작가세계』, 1995, 가을)

조연현도 <아리랑>의 인물형상화방법을 로망스적인 것으로 보았다. 흑백대립적인 것으로 밝혔는데, 이 방법에서 주인공은 완벽한 인물로 형상화되는 것을 말한다.

(조연현, 앞의 글, 앞의 책, p.26)

이들 민족영웅적 주인공의 삶과 운명은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인 역사이므로, 영웅적 주인공 모두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건과 이데올로기의 대립상황을 형상화시킨 역사의 화신이다. 그러므로 영웅적 주인공들을 통해 우리 역사를 다시 읽음으로써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주제를 실현시키려는 것이다.

결국 이들 세 작품이 모두 민족영웅적 주인공을 지나치게 내세운 것은 민족 정체성과 민족자존이라는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구조적 장치이다. 곧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민족자존을 이끌어가는 민족지도자급 영웅을 통해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주제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II-2. 근대적 대립구조로 근대성 극복

위에서 살핀 영웅적 주인공은 침략자와 피해자, 항일과 친일,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강대국과 약소국 등의 이분법적 사고를 대립적으로 형상화시킨 것이며, 이러한 영웅적인 대립적 인물과 이분법적 대립구조는 근대성이 지닌 이분법적 사고와 그 우열관계를 허물고 근대성을 극복하려는 진정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장치이다.

포스트콜로니얼한 텍스트는 모더니즘의 산물인 근대적 의미소들과 이들의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실현하는데,³⁾ 이 세 작품은 국가간 또는 남북간, 계급간의 노동, 지식, 소유, 권력의 근대적 의미소와 이분법적 사고를 통해, 식민지적 근대성과 민족분단의 극복, 민족정체성과 민족자주성의 확립이라는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의식을 확대시켜가는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아리랑>의 경우 민족주의자/친일, 반민족주의자와 같은 선명한 대립구조로 형상화된다. 민족 영웅적 주인공인 송수익을 필두로 공허, 신세호, 방대근, 정도규, 지삼출, 천수동 같은 민족주의자로 대표되는 인물들의 항일 의병활동과 만주독립군, 대종교도 및 사회주의자로서의 활약이 부각되어 있는데, 이들 ‘민족

3) 이에 대해서는 줄고, 『한국문학에 나타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 26집, 한국문학회, 2000.6.)에서 밝힌 바 있다.

주의 계열'의 활약은 양치성, 백남일, 장칠문, 서무룡 등 친일파와 일진회의 살인, 음모, 강간 등 악행, 그리고 하야가와, 쓰지무라, 하시모토 등 극악한 일본인의 횡포와 대립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들 대립적 인물들은, 이들 인물들이 내포하고 있는 대립적 의미소들인 노동과 소유, 지식과 권력, 민족과 일제, 농민과 봉건지주 등과 각각 연계되어,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근대적인 의미소와 대립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의 이분법적 대립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라는 대표적인 이분법적 대립으로 수렴된다. 이를 통해 민족해방에의 의지나 열망이 반제국주의로 구체화되고, 일본제국주의에 맞서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려는 건강한 민족주의로 확산되어, 민족자존과 민족 정체성을 확립시켜가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보여준다.

<태백산맥>의 경우, 남과 북,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지주와 소작인, 관과 민 등의 근대적 의미소와 이분법적 대립으로 나타나며, 민족분단 상황의 문제성을 민족 내부적인 모순에서부터 찾음으로써, 이들간의 이분법적 대립구조를 극복하고서, 국토통일과 민족의식의 총체성 회복 가능성을 열어주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작품이다.

염상진은 소작인 또는 하층민 계층을 대표하는 좌파 사회주의자로 표상된다.⁴⁾ 그는 토지개혁과 여순반란사건, 빨치산 투쟁 등을 통해, 소작인과 지주, 민과 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계층의식의 대립과 이념대립을 극렬하게 보여주는 핵심 인물이다. 여순반란사건 때 벌교지구의 군당위원장이었던 그는, 대동청년단 감찰부장으로 공산당을 잡아내는 아우 염상구와 극단적인 이념갈등과 형제간의 심리갈등을 보인다.

그리고 빨치산으로서 이론적 사회주의자이긴 하지만 몰락양반 또는 토착지주 출신인 안창민과 정하섭 등과, 소작인 출신의 빨치산 하대치는 계층대립을 내포하는 인물로서, 계급적 민족적 모순을 드러내어 준다.

이러한 계층간, 이념간의 대립은 민족주의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진보적이고도 중도적 지식인 김범우를 통해 극복되고, 국토통일과 민족총체성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 김범우는 결국 공산주의로 전향하지만, 백범 암살사

4) 권영민, 앞의 글, 앞의 책, pp.129~144.

건이 이승만과 한민당 등 친일파 세력의 소행이라고 믿는 민족주의 우선주의자이다.

김범우와 같은 중도적 인물은 이외에도 손승호와 심재모가 있다. 손승호는 사상보다는 인간을 우위에 두는 빨치산이며, 심재모 또한 벌교, 보성지구 계엄사령관이지만, 북의 해방전쟁이나 남의 멸공통일, 어느 쪽의 전쟁명분에도 회의론을 갖는 인물이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경우도, 남과 북,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강대국과 약소국, 한국과 일본, 미국과 소련 등의 근대적 의미소들의 철저한 이분법적 대립구조를 통해, 한민족의 자존과 민족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작품이다.

즉, 남과 북의 대립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의 대립으로 확대 연결되어 형상화되고, 박정희와 김일성이라는 두 지도자의 대립체제로 형상화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의 대립은 피해자와 침략자로서, 정신대 문제와 야쿠자문제, 독도 침공과 울산공단과 포항제철의 폭격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적대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또, 남한의 비핵화 선언과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있어서는, 남과 북 모두가 미국과 일본, 소련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로 대립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박대통령과 이용후박사, 안기부장, 김일성, 그리고 주인공 권순범 모두는 이념과 체제대립보다는 민족주의를 최우선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즉, 권순범을 비롯한 이들 민족주의자들은 냉전 체제 붕괴 이후 무의미해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대립과 미·소 대립, 남·북 대립 등을 극복하고, 민족차원에서 북한을 포용하고, 남북핵합작을 통해 민족자존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총체적인 민족정체성을 회복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세 작품은 이러한 영웅적인 대립적 인물과 이분법적 대립구조를 통해 근대성이 지닌 이분법적 사고와 그 우열관계를 허물고 근대성을 극복하려는 진정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실현이다.

Ⅲ. 민족 영웅적 실존인물을 통한 리얼리티 강화

이들 세 작품은 모두 우리 민족역사 속에 실존했던 영웅적 민족지도자들을 상당수 등장시킴으로써, 이들을 통해 영웅적 주인공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또한 서사구조에 폭넓은 사실성(reality)을 부여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Ⅲ-1. 민족 영웅적 실존인물을 통한 주인공의 영웅화

이 세 작품의 영웅적 주인공들은 역사적 변혁을 맞았던 사건마다 이들 영웅적 지도자들과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어 영향을 받거나, 또는 이들 역사적 사건을 함께 주도해 가거나, 항거하여, 역사적 흐름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것으로 부각되어 있는데, 이는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적 대사건마다 이들 영웅적 주인공의 역할이 막중함을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이다. 이러한 실존했던 영웅적인 민족지도자들을 통해 주인공은 더욱더 영웅적인 인물로 부각되며,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를 강화시키는 전체 구조적 장치이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경우, 박정희대통령을 민족주의 최우선 원칙을 지닌 강력한 영웅적 민족지도자로 부각시키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도 5공, 6공의 군사정권의 지속을 통해 군부독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컸던 시절이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민족주의를 최우선하는 민족영웅적 지도자로서의 강력한 이미지는, 6공의 비핵화선언과 북한의 핵사찰문제로 분노하고 절망하던 작가가 구축한, 온 민족의 염원이었다. 실존 재미물리학자 이휘소박사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1980년 8월 15일에 감행하려했던 지하 핵실험 계획에 대한 증언을 토대로,⁵⁾ 박정희 대통령은 냉전체제하의 미·소 양국, 특히 미국의 사사건건한 간섭을 받으면서도 민족자

5) 「두 사람의 죽음과 함께 묻혀 버린 어떤 비밀에 대한 확신이었다. 그것은 재처리 시설이 없으면서도 1980년 8월 15일에 지하 핵실험을 하려 했던 박 대통령의 계획이 관계자의 증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이미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얘기에 다른 아는지 않은가.」(『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작가의 말)

존을 위해 핵개발을 선택한 강력한 지도자로 형상화시킨 것이다.

나아가서, 군사독재와 장기집권의 부정적 이미지 보다는, 60년대 초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고,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멀리 독일에 간호원과 광부를 보내었던 경제성장의 혁신적 공로자로서까지 이상화시키는데, 이것은 '강대국의 강권에 의해 비핵화선언이 발표되고, 나라의 외교와 안보는 펜타곤의 발표를 복사'하는 듯한⁶⁾ 6공의 절망적 현실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만큼이나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민족지도자 또는 국가통치자의 출현을 바라는 작가의 민족적 열망이 빚어낸 것이며, 이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생전 업적까지를 재평가하려는 조심스런 의도도 숨어있는 것이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한민족의 민족자존을 우위에 두는 거시적 안목을 가진 또다른 민족통치자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부각시키고 있다. 작품 속에서 김일성 주석 또한, 남한에서 독파된 안기부장의 설득에 공감하여, 지배체제의 이득보다는, 한반도의 안보와 민족자존을 우선하는 민족주의자로 형상화되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두 역사적 실존인물을 통해 주인공 권순범은 더욱더 민족 영웅적 인물로 부각된다.

시대적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던 이들 두 실존인물 가까이에서 관련된 사건을 추적하거나, 이들을 움직여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민족 영웅적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신문기자였던 주인공 권순범은 플루토늄의 행방을 추적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의 비밀과 이용후 박사와의 핵개발 가능성을 알아내고,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고, 안기부장을 통해 김일성 주석을 설득하여⁷⁾ 남북한 핵합작을 실

6) 「작가의 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냄, 1993) 참조.

7) 「각하, 진정한 민족의 영도자가 되어 주십시오.....진정한 민족의 길을 가시겠다고 결심해 주십시오.....(중략)우리가 어찌서 북한을 미국과 일본의 시각대로만 봐야 합니까?그러나 동시에 북한은 우리가 안아야만 하는 형제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권1, pp. 276~277)

「.....박대통령과 이 박사는 이 플루토늄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만들어 1980년 8월 15일 지하핵실험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는 미국 CIA의 사

현시킨다. 또한 가상적인 국방시나리오를 통해 일본의 독도 침공과 한·일간 시베리아 개발권 경쟁 문제를 다룸으로써 오랜 민족적 가해자였던 일본을 응징하여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시킨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영웅적 주인공답게, 용기와 신념, 열정과 추리력을 지니고서, 전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며, 냉전체제 붕괴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의 안보문제에 대해, 역사의 흐름을 꿰뚫는 안목으로 미래지향적인 민족자존의 길을 제시하는 민족적 영웅으로까지 인물의 이미지가 강화된다.

<아리랑>의 경우 민족영웅적 지도자로 부각된 가장 강력한 실존인물은 단재 신채호이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은 일제와 일제에 유착한 친일파 모두를 ‘절대의 적’으로 규정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타도해야만 한다고 단호하게 선언한 것이며,⁸⁾ 이는 ‘의열단’의 <공약십조><칠가살><투쟁강령>의 근본사상이다.

신채호의 ‘절대의 적’⁹⁾이라는 민족주의 사상은 <아리랑>을 이끌어가는 사상적 중심이다. 작품 속에서 신채호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되는 《권업신문》의 주필로서 등장하며, 중국, 간도, 연해주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 진영에서 정

주를 받은 한국인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살해당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체 금지시키고 이 박사가 이루어놓은 실적을 토대로 핵개발 완료직전 김재규 정보부장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권2, 플루토늄의 행방, p.273.)

「……주석님, 지금의 입장으로는 남이든 북이든 독자적으로는 핵폭탄을 제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기술적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의 미일중소라는 강대국의 감시를 벗어날 수 없고, 핵사찰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중략) 우리에게는 플루토늄 팔십 킬로그램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져와 제조하면 불과 육개월 혹은 일 년 안에 핵개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중략) 주석님, 남과 북은 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권3, 동토의 살아있는 신, pp.67-68.)

- 8)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암살, 파괴, 폭동으로써/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파하고/…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신채호, 「조선혁명선언」 끝부분)

- 9) 김윤식, 근대문학의 시금석 - 단재의 경우,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정호용, <아리랑>의 주제, 『아리랑연구』, pp.150~159. 참조.

신적 지주의 한 사람으로 숭앙받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특히 영웅적 주인공 송수익의 사상적 스승이며, 방대근 등 '의열단'의 사상적 구심점이다. 방대근, 윤주협 등 의열단원들은 단재 신채호의 절대비타협, '절대의 적'사상에 따라 투쟁하다가 산화된다.

이외에도 의병장 신돌석, 독립군 홍범도, 김좌진 장군, 이동휘, 김병로 등의 독립정부 요인들과, 민족종교인 대종교의 교주 나철, 최익현 등의 항일적 실존 인물들이, 작중인물의 이념적 중개자가 되고 투쟁의 스승이 된다.

곧, 송수익을 비롯한 공허, 방대근, 정도규, 신세호, 고서완 등의 작중인물들은, 동학, 대종교, 신간회, 임시독립정부가 펼친 의병과 독립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 등의 역사적인 실제 사실들을 통해, 이들 항일적 실존인물들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리랑>에서 부정적으로 형상화된 민족지도자급 실존인물은 이승만인데, 신채호의 대립적 인물로 형상화된 것이다.

작품 속에서 이승만은 시세에 암매하고 무소불위의 독재를 감행하며 포용과 덕성이 결핍한 성격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탄핵을 받아 대통령직에서 면직되는, 독선적이고 부정적인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의 이른바 '교육준비론을 겸한 외교점진론'은 신채호나 도산 안창호에 정면대립되는 것으로서, 전혀 비현실적이고 외세의존적인 발상이며, 민족의 주체적인 독립의지를 훼손시키는 원인으로 그려져 있다.¹⁰⁾

또다른 민족지도자급의 부정적인 인물은 춘원 이광수이다. '조선인은 허위와 공상과 공론만 즐기고 게으르며 서로의 신의와 충성이 없으니 이를 반대방향으로 개조해야 한다'¹¹⁾라는 춘원의 '민족개조론'¹²⁾ 또한, 단재 신채호의 '절대의 적' 사상과 정반대의 부정적인 것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아리랑>에 등장하는, 신채호, 신돌석, 나철, 최익현, 이승만, 홍범도, 이동휘, 김병로 등의 실존 인물들은, 송수익, 공허, 방대근, 정도규 등 작중인물

10) 장영우, 사실(史實)의 재구(再構)와 원근법의 수위, 『아리랑연구』, pp.79~80)

11) <아리랑> 제7권, (해남, 1994), p.82.

12) 장영우, 앞의 글, 앞의 책, p.82.

들의 활약상을 부각시켜,¹³⁾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영웅적 민족지도자로서까지 형상화시키고, 리얼리티를 강화해 준다.

특히 단재 신채호와 이승만, 이광수와 같은 대립적 역사적 실존인물을 통해, 주인공 송수익은 더욱 민족영웅적 지도자로 이미지가 강화된다.

작품 속에서 애초부터 ‘생사를 미리 알아 모수불패라네 천년장수 송수익’으로 일반민중들 사이에 이미 영웅으로 각인된¹⁴⁾ 무정부주의자이며 민족주의자인, 송수익은 단적으로 신채호 사상을 형상화시킨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송수익은 일진회에 맞서 의병을 조직하고, 민주독립군이 된 후, 독립투쟁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대중교도가 되며, 삼부통합의 실패와 대중교 교주 나철의 자결, 신채호 체포사건을 계기로 무정부주의자가 된다. 송수익은 민족주의의 우선원칙에 의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어떤 세력과도 연합할 수 있다’는 ‘좌우연합의 공화주의’자이지만, 사회주의(공산주의)자는 아니다.¹⁵⁾

<태백산맥>의 경우 가장 이상적인 민족지도자로 부각된 실존인물은 백범 김구(金九)이다. 항일독립투사로서의 강력한 이미지와 함께 이념과 체제, 또는 계급을 뛰어넘는 김구의 민족주의 통일노선은, 작품 속에서 벌고의 유지이면서 중도적 지식인인 김범우의 사상적 모델이 된다.

‘우리의 국토를 양단시킴으로써 민족을 분열시키어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려 한다.’(<태백산맥> 제3권, (한길사, 1993), P.207)라고 민족분단을 강력히 반대하는 김구의 노력은, 아쉽게도 ‘백범 김구를 죽인 네 발의 총알’(<태백산맥> 제5권, P.200)에 의해 역사 속에서 묻히고 만다. 백범의 암살사건은 이승만과 한민당을 위시한 친일세력에 의한 것일 거라고 김범우의 추정에 의하여 간접적으로만 그려져 있다.

또다른 민족지도급의 실존인물은 이승만이며, 김구의 대립적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승만은 친일파로서 해방 후에 처단되지 않고 남쪽의 정권을 잡은

13) 「...실존인물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여 때로는 작중인물들과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허구적 인물들의 격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생함도 더해 준다.」
(조연현, 앞의 글, 앞의 책, pp.22~23. 참조)

14) 장영우, 앞의 글, 앞의 책, p.84

15) 장영우, 같은 글, 같은 책, pp.88~89.

부정적 인물로서, '자유 민주주의라는 허울'(<태백산맥> 제5권, P.278)을 쓴 남쪽 체제의 대표적 인물이다. 농민들의 소망인 농지개혁을 북한보다 뒤늦게 실시하여 불만의 소지가 되고, 여순반란사건 때 좌익반란군이 울어해방구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환영받은 것과는 달리, 뒤늦게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법을 발표하여 분노를 산다.

이승만은 결국 남쪽체제인 자유주의 또는 멸공통일의 대표자로서 북쪽의 사회주의 계급혁명 또는 해방전쟁과 체제적으로 대립되는 인물이며, 김구와는 항일독립운동과 민족주의 통일노선 측면에서 극단적으로 대립적인 인물인 것이다.

작품속의 민중지도자급의 주인공 김범우는, 민족영웅적 실존인물 백범 김구를 사상적으로 형상화한 인물이다. 별교로 대표되는 남쪽 이승만 정권 내에서 토지개혁을 둘러싼 농민과 지주간의 대립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적 인물이며, 중도적 지식인이다.

김범우는 '민족' 이외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어떤 이념 또는 계급이나 정치적 폭력을 모두 혐오하는데, 백범 김구의 민족주의 통일노선의 실현을 바라는 민족 영웅적 지도자로서의 면모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드러난다.¹⁶⁾

「……어떤 주의를 따르든 그건 개인의 자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곧 민족 전체를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미국이다, 소련이다,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런 정치적 택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민족의 발전입니다. (중략) 그 민족에는 일체의 정치성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미·소는 자기네들 이익 추구를 위해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는 훼방꾼들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갈려 이념을 먼저 선택하면 우리 민족은 결국 분열밖에 할 게 없다 그겁니다.……」

그리하여 백범 김구처럼 경찰서 군정청에 드나들며 좌익계 학생들을 석방시키는가 하면, 이들 사회주의 학생조직을 설득하고 파괴시켜 '파괴분자, 반동분자'라 낙인되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염상진의 극렬좌경행위를 보고, 사회주의 운동을

16) 조연현, 앞의 글, 앞의 책, pp.140~143. 참조

포기하고 중도적 입장을 취하지만, 6.25전쟁 발발후에는 결국 좌익편에 선다. 미군에 끌려가 통역요원 노릇을 하나 탈출하여 인민군에 입대하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서는 반공포로로 변신하여 당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다.

작품 속의 또다른 영웅적 민족지도자는 염산진이다. 소작인 출신자로 적색농민운동의 주동자로 뛰어들어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었던 그는, 북쪽의 사회주의 계급혁명노선을 사상적으로 형상화시킨 인물이다.

한때 남로당 군당위원장으로 별고를 장악했다가, 지리산의 빨치산 대장으로 서 휴전후 부하들과 자폭하고 마는 비극적 영웅의 모습은, 휴전후 전쟁실패의 책임을 지고 결국 숙청되었던 남로당의 박헌영 일파의 비극과 닮아있다. <태백산맥>은 이러한 비극적 영웅의 최후를 통해, 식민지가 낳은 민족적 계급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III-2. 실존인물을 통한 역사 다시 읽기와 리얼리티 강화

위에서 살폈듯이, 이들 세 작품이 모두 우리 민족역사 속에 실존했던 영웅적 민족지도자들을 상당수 등장시키는 것은, 영웅적 주인공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또한 서사구조에 폭넓은 사실성(reality)을 부여하여,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를 강화시킨다.

실재 있었던 민족차원의 역사적 사건을 실명까지 써서 다양한 각도에서 광범위하게 다루고, 이 때문에 사실성(reality)을 더하여 소설 속의 허구적 사실을 오히려 실재 역사로 혼돈시키기까지 한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실존인물과 실재 역사적 사건을 통한 철저한 리얼리티 강화는 ‘역사 다시 읽기’로 이어져서, 이를 통해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주제를 강화시킨다.

특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경우 리얼리티를 더하기 위해 실존인물을 상당수 등장시키고 실재 역사적 사건들을 뼈대로 삼았다.¹⁷⁾

박정희, 김일성, 김재규, 이우락, 키신저 등의 역사적인 인물의 실명 외에도,

17) 「……작품 속에는 우리의 역사적 현실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실존인물을 상당수 등장시켰다.」(『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작가의 말)

민족적인 현안이 된 6공의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북한의 핵사찰 문제를 다루고, 중동문제를 비롯한 냉전체제 붕괴 후의 전세계적 영토분쟁과 미국의 국제적 지위 변화와 불간섭주의, 그리고 일본식민지 시절 정신대 문제와 731부대의 마루타문제, 한국문화재약탈문제, 김현희·이운해 사건과 북·일 수교문제의 관련성 및 일본우익정치세력과 야쿠자 조직의 자금이 남한의 경마장, 도박, 마약과 관광, 유통업에까지 뻗쳐있는 현실을 광범위하게 다룸으로써, 현시대적인 긴박한 리얼리티를 고조시킨다.

이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후에 떠돌던 배후에 대한 후문이 작품 속에서 실재 사실로 독자에게 인식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미심쩍은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러한 철저한 리얼리티 강화를 통해, 지나간 한반도 역사의 교훈과 안보의 현실적 위험성을 제기하고, 결국 미래의 가상적인 국방부 시나리오 속에서 미래 지향적인 민족자존의 길을 제시하여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한, 냉전체제하에서 절대적 이태올로기 속에 묻혀버렸던 역사의 이면과 미심쩍은 역사적 사실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려는 ‘역사 다시 읽기’로 이어져서, 박정희대통령 시해 사건의 비밀을, 강대국의 억압 속에 묻혀버렸던 박정희 대통령과 이회소 박사의 핵개발 계획 추진 가능성과 관련시켜 드러내고, 핵개발을 통해 민족자존을 추구하려했던 박정희 전대통령의 업적을 재평가하기에 이르며, 이를 통해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주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아리랑>의 경우도 실존인물을 등장시키고 실재 역사적 사건들을 토대로 삼아, 리얼리티를 강화하였다. 한일합방직전에서 8.15해방까지의 실재 역사를, 신채호, 신돌석, 나철, 최익현, 이승만, 홍범도, 김좌진, 이회영, 이동휘, 김병로 등의 실존인물과 작중인물들을 관련시켜 생생하게 다룸으로써, 리얼리티를 강화하였다.

제 1부 ‘아, 한반도’에서는 통감부 설치 1년 전인 1904년부터 한일합방까지의 과정으로, 일진회, 동학, 의병 제1차 한일협약, 한일합방, 하와이 등을, 제2부 ‘민족혼’에서는 토지조사 실시와 3.1운동과 독립투쟁 등을 주로 다룬다. 제3부 ‘어둠의 산하’에서는 만주사변(1920년)부터 관동대지진, 공산주의 운동의 전개

와, 만주에서의 독립운동들을 부각시키고, 제4부 '등트는 광야'에서는 재만 조선독립군 토벌작전을 중심으로 일장기 말소사건과 조선족 중앙아시아 이주령, 진주만 폭격, 정신대와 강제 징용, 1945년 광복 등을 주된 역사적 제재로서 생생하게 다루었다.

<아리랑>은 이러한 '역사 다시 읽기'를 통하여, 그동안 묻혀왔던 이면의 진실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주제를 강화시킨다. 곧, 일제와 허망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꺼져가는 한반도의 운명이 시작되지만, 온 민족이 합심하여 철저하게 끝까지 맞서서 광복을 맞는 과정의 역사적 사건들을 조명하고,¹⁸⁾ 그 저력으로 '민족혼'이 살아있음을 부각시킴으로써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태백산맥>의 경우도 실존인물을 상당수 등장시키고 실제 역사적 사건들을 뼈대로 삼아, 리얼리티를 더하여 준다. 김구와 이승만, 박헌영과 같은 실제 역사적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면밀하게 드러냄으로써 리얼리티를 강화시켰다.

특히, <제1부> 토벌대, 계엄군주둔, 국토양단, <제2부> 빨갱이, 좌익분자, 용공행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습격, 자유민주주의, <제3부> 2대 국회의원 선거, 1950년 6월 25일, 사회주의 리얼리즘, 무상몰수, 무상분배, <제4부> 백두산 천지, 한라산 백록담, 1951년 1월 4일, 빨치산 휴전회담, 반공세력, 포로의 섬, 거제도, 휴전선으로 변한 삼팔선 등의 제목만으로도, 해방 이후 6.25 사변과 휴전에 이르기까지의 긴박한 정세변화와 역사적 흐름을 알 수 있고, 사실적인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실존인물과 실제 역사적 사건을 통한 철저한 리얼리티 강화는 그동안 냉전이데올로기 때문에 묻혀왔던 이면의 진실을 드러내고, 이러한 '역사 다시 읽기'를 통하여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주제를 강화시켰다. 즉, 해방 후 토지개혁을 둘러싼 농민과 지주간의 이념과 계층갈등을 드러내고, 토벌대,

18) 조연현은 <아리랑>의 의미를 일제침략에 의한 민족의 수난사보다는 우리민족의 투쟁사로 보려 하며, 민족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려는 것으로 보았다. (조연현, 앞의 글, 앞의 책, p.23. 참조)

계엄군주둔, 빨치산 등의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허망한 이분법적 이데올로기에 희생당한 한반도의 역사와 억울한 민중의 진실을 시원하게 꼬집어냄으로써,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의식을 실현하였던 것이다.

이들 세 작품이 모두 일제 식민지와 6.25사변과 분단, 미국의 신식민지적 상황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격동기를 다룸으로써, 역사적 실존인물과 실제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철저한 리얼리티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이는 ‘역사 다시 읽기’로 이어져서, 우리 역사 속에서 그동안 근대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은폐되어 왔던 문제들, 곧 친일파, 좌익세력,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살해배후, 북한포용 등에 관한 문제를 재평가하고, 억울한 민중의 진실과 투쟁의 역사를 시원하게 끄집어내어 다룸으로써, 민족자존과 민족정체성을 확립시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주제를 강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앞서 밝힌 이들 세 작품의 모든 영웅주의 경향은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를 강화시키는 전체 구조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IV. 영웅주의를 통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주제 강화

본 연구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1993), <태백산맥>(1993)과 <아리랑>(1994)에 나타난 영웅주의 경향의 양상과 원인을 밝히려 하였다. 곧,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한 이들 세 작품이 주인공을 극단적으로 영웅화시키고, 이 영웅적 주인공에 의해 극단적 대립구조로 전체 서사구조를 이끌어가는 영웅주의 경향을 띠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들 세 작품의 영웅주의 경향의 양상과 원인을 밝히려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먼저, 이들 세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우리민족의 운명을 바꿀놓을만한 일대 변혁기로 설정되어있고, 주인공은 모두 역사적 소용돌이의 핵의 위치에 서서

역사적 신념과 열정을 지니고서, 그 시대적 흐름을 주도해 가는 적극적 주도자, 즉 영웅적 인물로 설정되어 있음에 주목함으로써, 영웅적 주인공을 지나치게 내세운 것은 모두 민족정체성과 민족자존이라는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임을 밝혔다.

곧,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민족자존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급 영웅을 통해 주제를 뚜렷하게 부각시키려는 장치이며, 또한 이러한 영웅적 주인공은 항일과 친일,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강대국과 약소국, 침략자와 피해자 등의 이분법적 사고를 대립적으로 형상화시킨 것이며, 이러한 영웅적인 대립적 인물과 이분법적 대립구조는, 근대성이 지닌 이분법적 사고와 그 우열관계를 허물고 근대성을 극복하려는 진정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실현을 위한 서사장치임을 아울러 밝혔다.

다음으로, 이들 세 작품이 모두 우리 민족역사 속에 실존했던 영웅적 민족지도자들을 상당수 등장시킴으로써, 이들을 통해 영웅적 주인공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또한 서사구조에 폭넓은 사실성(reality)을 부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 세 작품의 영웅적 주인공들은 역사적 변혁을 맞았던 사건마다 이들 영웅적 지도자들과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어 영향을 받거나, 또는 이들 역사적 사건을 함께 주도해가거나, 항거하여, 역사적 흐름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것으로 부각되어 있고, 이는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적 대사건마다 이들 영웅적 주인공의 역할이 막중함을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임을 밝혔다. 이러한 실존했던 영웅적인 민족지도자들을 통해 주인공은 더욱더 영웅적인 인물로 부각되며, 전체 서사구조에 폭넓게 사실성(reality)이 부여되고, 역사적 배경이 더욱더 생생하게 부각되어짐도 아울러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론적으로, 이들 세 작품이 드러내는 모든 영웅주의 경향은 포스트콜로니얼한 주제를 강화시키는 전체 구조적 장치임을 밝혔다.

참고문헌

- 빌 에쉬크로프트 外 2인 공저, 이석호 역,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민음사, 1996)
- 에드워드 사이드 저, 김성곤·정정호 역, 『문화와 제국주의』(도서출판 창, 1995)
- 에드워드 사이드 저, 박홍규 역,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1991)
- 조혜정,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권1) - 바로 여기 교실에서』
(또하나의 문화, 1992)
- ,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권2) - 각자 선 자리에서』
(또하나의 문화, 1994)
- ,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읽기와 삶읽기(권3) - 하노이에서 신촌까지』
(또하나의 문화, 1994)
-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민음사, 1997)
- 마단 사랍 外, 임현규 역, 『테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인간사랑, 1991)
- 스티븐 코너 저, 김성곤·정정호 역, 『포스트모던 문화 - 현대 이론 서설』(한신문화사, 1993)
- 김성곤, 『미로 속의 언어-현대 미국작가와와의 대화』(민음사, 1986)
- , 『포스트모더니즘과 현대미국소설』(열음사, 1990)
- 편, 『탈구조주의의 이해 - 데리다·푸코·사이드의 문학이론』(민음사, 1990)
- 김영민, 한국근대문학비평사(소명출판사, 1999)
- 채호석, 한국 근대문학과 계몽의서사(소명출판사, 1999)
- 김명인, 불을 찾아서(소명출판사. 2000.4)
- 고미숙, 비평기제(소명출판사. 2000.1)
- 정정호·강내희 편, 『포스트모더니즘론』(도서출판 터, 1990)
- 김진명,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권1~3, (해냄, 1993)
- 조정래, 『태백산맥』권1~10, (한길사, 1993)
- , 『아리랑』권1~12, (해냄, 1994)

권영민, 『태백산맥 다시 읽기』(해냄, 1996)

조남현 外 11인, 『아리랑 연구』(해냄, 1996)

이해년, 한국문학에 나타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연구, 『한국문학 논총』 제26집,
(한국문학회, 2000. 6)

신승엽, <태백산맥>과 장편소설의 새 지평, 『민족문학을 넘어서』(소명출판사.
2000.1)

조남현, 소설을 통한 역사와 민족의 새 독법, 『아리랑 연구』(해냄, 1996)

황광수, 역사적 상상력과 변증법적 소설 미학, 『아리랑 연구』(해냄, 1996)

장영우, 사실(史實)의 재구(再構)와 원근법의 수위, 『아리랑 연구』(해냄, 1996)

정호웅, 『아리랑』의 주제, 『아리랑 연구』(해냄, 1996)

권영민, 역사적 상상력의 집중구조와 확산구조, 『아리랑 연구』(해냄, 1996)

Abstract

A Study of Heroism in the Korean Post-colonialism Literary Works

-focused on <Arirang>, <Taebaek Mountains>, <Blooming of the Rose of Sharon>-

Lee Hae-N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eroism portrayed in the major Korean post-colonialism literary works such as 'Arirang'(1994), 'Taebaek Mountains'(1993), and 'Blooming of the Rose of Sharon'(1993). The study attempts to show how these novels try ardently to make the main characters into the heros and use them to create the divisional opposition in the narrative structure focusing mainly on the herois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First, the above listed works overly portray the main characters with the responsibilities to save the troubled country. This is due to an attempt to show the issue of post-colonialism for the sake of national identity and pride. It was shown that the heros are portrayed to play a role of presenting divisional opposition ideologies of anti- and pro-Japan, and nationalism and imperialism. It was also proven that the heroic characters try to overcome the modernism to restore the authentic post-colonialism by breaking the hierarchy relations in the divisional opposition ideology.

Second, the study has found that these novels have introduced quite a few famous national leaders who played important roles in the historical events that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fate of the nation. Moreover, it

opened a way for the narrative structure to receive a wide range of the reality.

Therefore, it is proven that all the aspects shown in the novels are found to be the structural mechanism to strengthen the theme of post-colonialism.